



보도시점 2024. 6. 12.(수) 16:30 배포 2024. 6. 12.(수) 10:00

방기선 국무조정실장,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에 총력 당부

- 세종시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현장 방문, 차질없는 피해지역 복구와 내실있는 산사태 예비경보 활용 등을 당부

-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12일(수) 오후,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사태 피해 복구현장을 점검했다.
 - * 참석자 : 산림청차장, 세종시 행정부시장, 세종시 환경녹지국장 등
 - 방문한 현장은 '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, 작년 응급조치 이후 올해 2월부터 피해복구를 시행하고 있다(6월말까지 완료)
- 금년도 주요 산사태 예방대책 등과 관련하여,
 - 정부는 산지와 더불어 산지外 급경사지·도로사면·농지 등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사면까지 관리하는 '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'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,
 -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단계(주의보, 경보)에서 3단계(예비경보 신설)로 개편하여 경보발령 이전 대피시간 1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.
- 방 실장은 “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,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재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'23년 산사태 피해지는 장마철 전에 복구를 완료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,
 - 산사태 발생에 취약한 지역은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, 유사시 주민대피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.
 - 아울러, 금년부터 도입한 '산사태 예비경보'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관계자 교육 등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경제조정실	책임자	과 장	최민지 (044-200-2231)
	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조한겸 (044-200-2233)